

Kormeat News

2005년 현장연구조사 중간발표회 개최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7월 20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2005 현장연구조사 중간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현장연구조사

는 축산물등급판정업무 및 식육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자기계발과 판정소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현장연구조사는 일선 등급판정사들이 현장 등급판정업무와 병행하여 업무개선에 효용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현장연구조사는 각 반별 대표 9명과 김경남 소장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각 지역 11개반에서 『도매시장·공판장에서의 돼지도체 가격 형성 메커니즘 분석』, 『소 등급별 평균 경락가격과 10%이상 가격차 발생 도체에 대한 특성조사』, 『모리사료 급여가 육우(거세)의 육질특성에 미치는 영향』, 『도체상태에서 돼지의 성(性)구별에 관한 연구』, 『파각관 출현율 감소방안』, 『돼지판정 항목중 조직감과 육질간의 상관관계 분석』, 『축산관련분야의 경제활동 형태조사와 신규파생 직업군 연구』, 『닭도체 각호수별 등급별 부위별 수율조사』, 『돼지도체의 이분할 상태가 등지방두께에 미치는 영향』, 『돼지 탕박도체의 등급별·부위별 정육율 조사』, 『산란계의 주령에 따른 H.U 및 난각 강도 비교 조사』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특히 급변 현장연구조사는 좀더 충실한 현장연구조사를 위하여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하여 추진방향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한 좋은 고견을 들을 수 있었다.

최종발표회는 10월 중순 각 연구조사반의 반장 및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농림부장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판매장』 방문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7월 18일 농협유통 하나로클럽 양재

점에서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현장 보고회를 개최했다. 농협중앙회와 함께 개최한 이번 보고회는 농림부장관이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적용 판매장』을 방문하여 이력제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소 김경남 소장의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추진경과 보고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영상발 시청, 판매장에서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검색 등이 시연됐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이력추적시스템을 농업전반에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한편, 핸드폰을 이용한 쇠고기 이력조회 이동통신사를 확대하고, 시범사업 참여 브랜드 확대 및 전면실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소미지단체 대표, 언론매체관계자, 시범사업 참여브랜드경영체 대표 등을 초청, 본 사업의 취지 및 현황 등을 설명함으로써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추진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축산물 부분육등급표시 활성화 방안 협의회 개최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7월 19일 축산물등급판정소 대회의실에서 축산물 부분육 등급표시 활성화 방안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대한양농협회 최성현 차장 외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쇠고기 부분육

등급표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돼지고기 부분육 등급표시 확인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유통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돼지고기 부분육에 대한 등급표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돼지고기 부분육 등급표시 유통에 대해 ▲ 부분육 등급표시를 위한 냉장·보관시설 확충 ▲ 추가인력 소요 ▲ 가공시간의 증가 ▲ 작업공정시스템 조정 등의 사유로 식육가공장의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한 ▲ 성별·등급별 미구분 ▲ 지육경매관행으로 인한 식육판매점의 부분육 구매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국내 생돈 수입의 불균형과 수입육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돼지고기 부분육 등급표시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등급과 품질의 차이 발생에 따른 분체점을 보완(돼지고기 냉도체 등급판정의 확대)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7~8월 중에 돼지 부분육 등급표시 시범사업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11월부터는 돼지고기 부분육 등급표시 판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계란등급판정 집하장 견학 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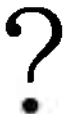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7월 21일 계란 유통업체 바이어블 초청하여 계란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는 소백양계 집하장을 견학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2001년 대구·경북양계조합(현 한국양계조합 대구유통센터)이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한국양계조합 대구유통센터 등 9개 집하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소백양계는 6월 전국 등급판정문량 약 11백만개 중 3백5십만개의 등급란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풀부원을 비롯한 국내 대형유통업체 바이어들이 참석하여, 계란등급판정 방법 및 등급란 생산과정 등을 직접 둘러봄으로써 등급란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계란등급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 2005. 8

축산물 등급정보



「축산물등급정보」 표지사진 공모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직원들의 취미활동 활성화를 통한 애사심 고취와 「축산물등급정보」 제작에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산물등급정보」 표지사진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축산물등급판정소 전 직원이며, 공모 부문은 산하풍경·축산물등급판정·일상관련사진 등 형식의 제한은 없다. 8월호 표지 사진은 서울지소 김대영의 「추암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전경」이 선정되었다.